

‘대승불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됐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극대대 총장 편역)

20. 대승불교(大乘佛敎)에의 길 ④

역사적 변천의 사고방식

이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굳게 세워진 이래, 시공간을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2,6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도 법의 핵심은 조금도 변천이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외부적인 상황은 매우 다양(多樣)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그 변천과 다양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은 후에 이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대승불교(大乘佛敎)라는 큰 물결이 이 가르침 속에서 생기며 소승불교(小乘佛敎)라고 불리어지는 다른 흐름과 현저한 대조(對照)를 보여주게 된 것은 불교의 역사적 변천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천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예를 들면 소위 선가(禪家)의 입장과 같은 것이 있다. 방대한 경전, 세밀한 논주(論註)를 앞에 두면서 감히 교외별전(敎外別傳)을 주장한다. 혹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말하며 어느 때는 직지단전(直指單傳)을 설명한다.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이러한 주장이 생기게 된 사정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시 다른 예를 들면 소위 염불(念佛)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 수행과 목표는 붓다가 가르친 이 지혜의 길이 전통(傳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조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인상까지도 준다. 도대체 어떠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이 이 길 가운데서 생겨난 것일까. 그것의 해석도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점이다.

물론 이때까지의 불교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에 관해서 그 경위를 밝히거나 해석함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역사적인 사정을 정밀히 연구하였으며 그 해석을 여러 관점에서 시도하였기에 더 첨가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 가르침 속에서 생겨난 그 사정과 이유에 관해서 말할 때 지금까지의 학술(學說)에는 총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하나의 편향(偏向)이 있었다. 즉 그 사정과 이유란, 언제나 특정한 한쪽 편에서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대승불교 쪽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소위 소승불교 쪽의 발언은 거의 전혀 막혀져 있는 점이다. 그것의 단적인 표현은 대승·소승이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다.

대승불교의 대(大)라는 말은 하나의 미칭(美稱)이다. 대승불교 쪽의 사람들은 자기 가 받드는 주장을 스스로 칭하여 대승이라고 하였다. 이것과는 달리 소승불교의 소(小)라는 말은 폄칭(貶稱)이다. 소승불교 쪽의 사람들이 그 받드는 교법을 스스로 소승이라고 폄칭할 리가 없다.

그것은 틀림없이 타칭(他稱)이다. 대승불교 쪽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적하여 폄칭한 타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학자들은 이 미칭과 폄칭을 써오면서 오랫동안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취급하여 왔다. 이것은 학자들이 언제나 한쪽 편에서만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벌써 그러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입장에서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들은 불교를 하나의 전체로서 보았으면 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어느 것이 훌륭하며 어느 것이 뒤떨어져 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하나의 전체로서 본 불교 속에 소위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흐름이 발생한 것은 어떠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것인가. 혹은 또 선가(禪家)의 주장이 생겨났다는 것, 또 염불(念佛)의 문류(門流)가 생겨났다는 것에는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요청(要請)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들은 오히려 불교의 역사적 변천의 해석을 이러한 방향에서 새롭게 조명(照明)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불교 교단(敎團)의 계급성

이러한 각도에서 불교의 역사적 변천을 둘러쳐보면 먼저 주목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이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역사적 제한(制限)을 걸머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붓다의 교단이 표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개방된 화합 평등의 교단이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 교단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귀족의 아들들’이었다. 경전에서는 자주 그 가르침을 ‘양가(良家)의 청년을 고향의 집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일처부주(一處不住)의 생활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양가의 청년(Kulaputta)’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귀족의 아들들’을 뜻한다.

물론 붓다의 제자 가운데 고귀한 출신이 아닌 자를 가려내는 일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나타라는 제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비천한 출신이었다. 또 난다라는 제자도 원래는 양(羊)을 치면서 살아가는 천한 목동(牧童)이었다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 칸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불상은 대승불교 미술의 정점이다. 대승불교는 시대와 지역을 거처야 만들어진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다.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제자들 예컨대, 사알리 푸트라(사리불), 목가라나(목건연), 아난다(아난), 아니루타(아나율) 그리고 아사 등은 대개 바라문이 아니면 크샤트리아의 출신이며 적어도 서민(庶民) 가운데서는 장자(長者)라고 불리는 부자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노동(勞動)에 종사하며 이마에 땀 흘리면서 생활한 사람의 이름은 비록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였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근본불교 교단이 저절로 형성된 일종의 계급성(階級性)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표방하는 것은 평등이었다. 누구든 그 사회적인 신분은 이유로 해서 이 교단에 입단(入團)하는 것이 거부된 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을 형성한 것은 자연스럽게 주로 상층계급의 출신이

며 지적(知的)으로 우수한 청년들이었다.

이것은 원시 기독교 교회에 참집(參集)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현저한 대조(對照)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있듯이 “지혜있는 자 많지 않으며, 능력있는 자 많지 않으며, 귀한 자 많지 않으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신분이 천한 지성도 능력도 뒤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여기 근본불교 교단을 형성한 사람들은 대개가 신분이 높으며, 지성도 능력도 뛰어난 ‘양가(良家)의 자제’들이었다. 거기에 일종의 계급적 편향(偏向)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불교 교단의 계급성은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일까.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정구(淨口)의 참 의미

불자들이 <반야심경> 다음으로 즐겨 염불하는 게 <천수경>이 아닐까 싶다. <천수경>은 정구업(淨口業)으로 시작된다. 말을 정(淨), 입 구(口), 지을 업(業)은 비록 세 자이지만 하나 <천수경> 전체의 뜻이 함축된 단어로도 풀이할 수 있겠다.

<천수경>은 본래 ‘천수천안대자대비관세음’이라는 꽤 긴 이름을표를 달고 있다. 손이 천개, 눈이 천개의 관세음보살이 <천수경>의 주인공인 셈이다. 우리나라 불교계엔 천수경강의집이 수도룩하다. 맨한단 불교학자, 교수, 스님들이 앞다투어 천수경 강의집을 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첫 시작부터 해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업(口業)을 설명하는데 있어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 중의 하나인 입으로 짓는 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몸으로 짓는 업(業)으로는 탐내고 성질내며 어리석음을 끼어 넣는다. 그 중 입으로 짓는 업(業)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간질과, 험한 욕설과 거짓말과 기만하는 말을 들고 나온다. 하여 구업(口業)을 수행 덕목의 으뜸으로 삼으

는 안 된다(言者不識).”

<도덕경>에서 옮겨온 노자(老子)의 말 씀이다. 불교에서는, 입을 연 즉 그르친다(開口即着)는 말이 있다. 입은 모든 제앙의 문(口是禍門)이라는 말도 있다. 파주에 있는 보광사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 보광사 암자 중에는 입조심 절(守口庵)이 있었다. 예전 머느리의 시집살이에 벵어리 3년이 끼어 있었음을 알 것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 등지에서 생활할 때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 중에는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린 원숭이 조각품이 있었다.

하여, <천수경>의 첫 시작이, 입을 막게 하는 정구(淨口)로부터 비롯된다. 아무튼 입은 요술단지이자, 알라딘(Aladin)이 춤을 추는 손오공의 은신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이 탕감되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비수(匕首)되어 원한과 증오를 몰고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부싸움 중에는 지켜야 할 성역(聖域)이 있다고 한다. 혼전(婚前) 남녀 관계의 경력을 묻거나, 친정이나 시댁 쪽의 별 볼 일 없는 가문(家門)을 들춰내서

입으로만 업보를 짓는 게 ‘口業’ 아니다 바른 말 한마디 세상 이롭게 한다

라는 풀이쯤으로 대개의 천수경 강의집이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코밑의 입만이 입이 아니다. 두 귀는 듣는 입이요, 두 눈은 보는 입이다. 두 개의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모조리 조심하고 길들여야 할 또 다른 입인 것이다. 넓게 보면 털구멍 하나하나가 입이요,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그대로 입이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욕설과 기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코 밑의 입뿐이겠는가. 눈짓으로 말할 수 있고 얼굴 표정, 몸짓, 손짓으로도 얼마든지 긍정도 부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수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이 천 개이고, 눈이 천 개이면, 입도 천 개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부처님 경전 속의 숨은 뜻을 머리를 굴려 헤아리지 말 일이다. 열린 마음이면 뜻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말 한 마디를

“아는 자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知者

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은 어투의 높낮이에서, 또는 표정의 업-다운에서 휴전(休戰)도 올 수 있고 3차대전으로 확전(擴戰)도 되는 모양이다. 가정의 평화, 부부의 금슬은 주고받는 말씨에서 싸이 돌을 수도, 오 그러할 수도 있을 터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멀리듯 더듬거리며 소곤거리듯 하는 사랑 고백, 미안할 때, 혹은 크게 고마울 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감동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하여,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남기고 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供養具)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자, 이제부터 미묘한 향의 말 한마디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도록 하자. 칭찬은 밀천이 필요 없는 남는 장사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지 않던가.

불교의 보시(布施)에는 애어(愛語) 보시(布施)가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에까지 밝게 하는 빛줄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 | | | | |
|----------------------|------------------------|------------------------|------------------------|
| CD01-제1, 서문(39:25) | 제8, 오색제자수기(21:11) | 제15, 종지용출품(21:13) | 제22, 촉루품(04:36) |
| CD02-제2, 방편품(46:51) | CD06-제9, 수화무학인기(11:22) | 제16, 여래수랑품(21:15) |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
| CD03-제3, 비유품(54:24) | 제10, 법사품(18:39) | 제17, 분별공덕품(23:31) | CD10-제24, 무음보살품(16:12) |
| CD04-제4, 신생품(30:24) | 제11, 권보탈품(22:19) | 제18, 수화공덕품(13:23) |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
| 제5, 약초유품(16:08) | 제12, 제바달다품(15:54) |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 제26, 다라니품(10:07) |
| 제6, 수기품(17:13) | CD07-제13, 권지품(10:07) |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
| CD05-제7, 화성유품(51:41) | 제14, 안력행품(27:27) | 제21, 여래신력품(08:59) | 제28, 보현보살연발품(14:07) |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인불상